

# 비행청소년의 독서경험에 관한 종단연구

## A Longitudinal Study of Bibliotherapy with Juvenile Delinquents

고정원, 나우학교, shaogao@naver.com

Jung-won, Ko, Nowon Youth Center Now School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이 중학생 시절 경험했던 독서활동과 탈비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내러티브 탐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탈비행에 미치는 독서활동의 영향을 밝히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실시한 종단연구에 참여한 탈비행청소년은 5명이며, 연구기간은 8년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독서활동에 대한 탈비행과정을 자유로운 질문으로 면담일지와 내러티브 텍스트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참여자로 참가한 비행청소년들은 독서활동을 통하여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현재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어 건강한 성인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탈비행 지속성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이 선결조건임이 확인되었다.

### 1. 서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Ellis(2007)<sup>1)</sup>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으로 인해 스스로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므로 합리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사고의 전환을 도와주는 활동 중 하나가 독서이다. 그 중 문학작품을 소재로 하여 치료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왜곡된 인지구조를 새롭게 하는 독서치료가 있다. 독서치료는 책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욕구불만이나 상한 마음을 표출하며 책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통찰할 수 있다(김수희, 2007)<sup>2)</sup>. 서기자(2006)<sup>3)</sup>는 독서 그 자체가 새로

운 생산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는데, 책을 통해 단순히 줄거리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이 더해짐으로 인지적인 변화가 유도되어 새로운 사고와 인지의 형성이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통해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사고의 변화를 시도하는 독서치료는 최근에 들어와 계속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연구자는 일정 시기와 차시를 정해두고 독서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초기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이끌어내어 이들이 회복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독서에 의한 적응 문제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문헌정보학은 연구대상으로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며, 이론의 응용성이 강한 사회과학이며<sup>4)</sup> 또한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밀착적인 접근과 구체적인 사실에서 이론을 발견하거나 개발해

나가는 실사구시적 연구자세가 어느 학문보다 절실히 요구<sup>5)</sup>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인 청소년, 특히 비행행동이 있는 청소년들이 문학작품을 활용한 독서치료를 통하여 그들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인지구조의 변화를 통해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킴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도 원만한 적응을 통해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해 나가는 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내러티브 탐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경험의 사건들을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연구방식의 Clandinin & Connelly (2000)<sup>6)</sup>의 내러티브 탐구방법(Narrative Inquiry)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말하며, 연구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는 삶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말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 고쳐 말하고, 깨달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기로 구성해가는 순환적 진보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탈 비행과정과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단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경험된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더 큰 이해와 의미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그 방법이 독서를 이용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내러티브탐구로부터 파악된 지식은 연구 참여자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가능한 행위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탈비행행동의 지속성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Clandinin & Connelly (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내러티브 탐구란 사회과학 분야의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협력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서 이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탐구를 진행시켜 나간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시 이야기하는(retelling) 가운데 탐구를 마무리짓는다.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연구 단위가 이야기 형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와는 구별되며 사전에 특정한 이론이나 형식을 바탕으로 분석될 수 없다. ③ 내러티브는 연구의 대상이며 연구의 방법이다. ④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간의 협동 연구로 이어진다. ⑤ 객관성의 입장을 떠나서 해석과 의미의 이해에 초점을 둔 연구시각으로 움직인다. ⑥ 경험을 3차원적 탐구공간 속에서 탐색하는 연구이다. 3차원적인 공간이라 함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교차하고,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이 서로 잇닿아 있는 장소를 은유적용어로 표시한 것으로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등이 있다(이호신,2012)<sup>7)</sup>.

### 2.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는 비행청소년으로서 독서활동 경험이 있는 중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006년 당시 연구자가 근무하던 중

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폭력서클 회원으로 연구자와 친분이 있던 학생 S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나이는 1992년생 여학생으로, 2014년 현재 대학생 4명, 직장인 1명이다. 동거가족을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이 3명, 아버지와 같이 사는 학생이 1명, 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이 1명이다. 형제관계는 자매 중 막내인 경우가 3명이다. 가족 소득수준은 3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고, 2명은 저소득 가정이다.

여학생으로 구성된 이유는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았고 동일 학교의 폭력서클 일원이기 때문에 집단간의 역동성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비행 문제의 집단화의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학생들의 나이가 한정된 것은 연구수행을 위해 참여관찰이 가능한 곳으로 연구자가 근무하던 J중학교 교육복지실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2006년 첫 만남 당시 독서를 좋아하는 연구참여자는 학생 H밖에 없었으며, 2014년 현재는 독서생활을 유지하여오고 있다. 장래희망 직업으로는 2006년과 2014년에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참여자의 솔직성(integrity)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라포르(rapport)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만난 많은 학생들 중에 비행경험이 있고, 라포르 형성이 되어있으며, 연구자가 진행한 독서활동을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사전 연구에 앞

서 그 중 몇몇의 학생을 인터뷰 해보았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경험이 같은 학생으로 정했다. 이 학생들은 연구자의 석사연구 활동에도 참여하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최종명단은 <표 1>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인적 상황 및 특성  
(모두 1992년생 여자로 동일)

	여학생J	여학생H	여학생L	여학생M	여학생S
2006년 성적상위%별 점1)	72%(19점)	79%(18점)	94%(14점)	93%(8점)	77%(12점)
2007년 성적(별점)	46%(0점)	69%(9점)	90%(9점)	89%(2점)	62%(4점)
2006년 장래희망	암흑가의 보스	사망	연예인	없음	사장
2007년 장래희망	사회복지사	중국 무역	한의사	헤어디자이너	사회복지사
2013년 장래희망	건물디자이너	요리사, 인터리어전문가	간호사	국제구조운동가	카페 CEO
고등학교	상고 디자인과 - 공부도 열심히하고 학생회장 역임	인문계 갔다가 자퇴 후 검정고시	상고 - 가족 내 교우관계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연락함	난민신청을 위해 영국출국. 입국거부 후 귀국하여 대안학교 입학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진학. 성적은 오르지 않았지만 별점없이 다님
2013년 현재	서울근교 4년제대학 디자인학과 3학년, 지금은 필리핀 어학연수 중	서울 시내 전문대 중국어과 2학년 휴학 중 바텐더 아르바이트 중	서울시내 개인병원 간호조무사	서울시내 4년제 대학 국제통상학부	서울근교 전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
경제상황 및 특이사항	생활보호대상자. 아버지 교통사고 후 신체, 지능장애	아버지 주식투자 실패 대출금 갚고 있음. 부모 이혼	생활보호대상자. 아버지와 어린시절 사별	생활보호대상자. 탈북. 언니3, 오빠1, 남동생1, 조카1	아버지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 부모 일용직.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참여자는 중학교 2,3학년 때 연구자와 함께 독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고, 비행경험이 있으며, 1992년 출생하여 2014년 현재 만 22세이다. 2006년부터 유지되어 온 서로간의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했다.

1) 징계기준 : A중학교의 학생선도규정 제10조 징계기준  
누진 별점이 10점 이상인 학생 : 학교 내 봉사 3일(정신교육 및 봉사 활동)

## 2.3 연구절차

연구의 과정은 Clandinin & Connelly(2000)이 제시한 방법론을 전체적인 근간으로 해서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크게 5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단계별 과정은 모든 단계가 서로 겹치고 중복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교차하며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텍스트를 구성하다가 다시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장에서 연구텍스트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현장텍스트를 다시 확인하고 구성할 수도 있다.

첫단계, '현장 들어가기' 현장 연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7년 전인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연구자는 독서지도학 석사과정 연구를 진행하면서 종단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되는지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2006년 당시 진행했던 모든 독서활동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와 상의 하에 계획되고 진행되었다.

둘째 단계, '현장텍스트 구성'은 연구에 활용될 데이터를 현장에서 수집하는 단계로 2006년부터 작성해 왔던 현장텍스트 즉, 연구자 일지, 연구참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담임교사와, 사회복지사와, 가족과의 면담일지, 연구참여자의 편지, 연구참여자의 자기소개서 등을 정리하고, 2013년 현재 연구참여자들을 인터뷰하고 또한 연구 진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연구자 일지를 작성하였다.

셋째단계, '현장텍스트작성' 단계에서는 2006년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연구일지로 작성하였다.

넷째단계 '현장텍스트를 통한 연구텍스트 구성' 단계에서는 녹음기록과 녹취록을 대조하며

읽어가면서, 녹취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씌여진 것을 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연구참여 자별로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여 다시 자료를 읽으며 재구성하였다.

다섯째단계, '연구텍스트작성'단계에서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재구성된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적절한 형식으로 다시 쓰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작성이 완료된 텍스트들은 해당전문가들(상담, 청소년 전문가)에게 보내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과 연구자는 단행본 『교실 밖 아이들 책으로 만나다』(2010, 리더스 가이드)를 출간하여 KBS, EBS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하여 연구텍스트 조정과정을 거쳤다.

2013년 11월 연구참여자의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연구자가 연구텍스트의 질문항목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참여자가 형식이나 내용을 자유롭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였다.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된 원자료들은 연구자가 서술내용 그대로 기록하고 문자화하여 연구자료의 텍스트가 되었다.

## 3. 결 과

### 3.1 내러티브 분석결과

비행청소년들의 독서활동 경험과 탈비행 과정을 내러티브탐구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2006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인터뷰 녹음파일, 면담일지, 편지, 연구자의 홈페이지에 남긴 글 등을 내러티브분석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와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계속된 질문 속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소단위로 분절하여 분석하고 전체를 종합하여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일반화

하였다. 파편화 되지 않은 삶의 경험을 담아내기 위해서 은유적 방법(Clandinin & Connelly, 2007)<sup>8)</sup>을 빌려왔다. 이 방법은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서 주제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법이기 때문이다.

비행청소년들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행행동을 독서활동을 통해서 줄여나가면서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은유와 풍경으로 도식해본다면 ‘고장수리한 파란 자전거’로 그려낼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가정 내의 문제였다. 그들은 부모의 병, 이혼, 사별, 탈북, 도산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어른들의 나약함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하여 비행행동을 선택하였다. 비행행동을 하는 ‘고장난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은 독서활동을 통해 가정의 아픔을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연구자와 개별 책을 읽으며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어 인정하고, 자원봉사 등 세상을 만나는 연습을 통해 부모와 교사 등 타인을 이해하는 모습은 ‘수리가 잘된 자전거’를 연상시킨다. 마침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여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잘 나가는 파란자전거’의 모습이었다.

이를 과정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독서활동 이전의 삶

- 비포장도로에서 상처 키운 삶 : 상처 외면하고 살아가기

사춘기의 절정을 맛보고 있을 때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친구만 있으면 뭐든 무섭지도 않고 다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학교를 가도 수업을 빼먹고 싶을 때는 무단 조퇴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정도였다. (2012. 12 교육청 자료집에 실린 여학생 S의 글)

중학교 현장에서 비행학생들의 문제는 항상 폭력문제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학생에게는 징계가 이루어지며 비행학생들은 끊임없이 교사와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 비행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비행학생들에게 비포장도로처럼 폭력서클이라는 못된 길이 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곧 쓰러질지 몰라도 그 길에 있고 싶어 한다. 그 길에 있으면 또래 관계 안에서는 누구도 우습게 보이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정으로부터 이어진 위축된 상황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었다. 홀로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학생들은 더욱 비포장도로에 들어오기 위하여 애썼다. 억지로 자전거 핸들을 꺾으려는 어른들이 싫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잘 닦여진 길에 가면 자신의 외소함이 드러날까봐 그쪽 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나약함을 일깨워주는 가정과는 점점 멀어져갔고, 자기가 입은 상처도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비행학생들은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빈정거림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외면했다.

#### 2) 독서 활동에서의 경험

- 수리 중인 자전거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그 때 뭔가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강아지똥> 재미있었는데 슬퍼했던 기억이 나요, 강아지똥이 구박받다가 민들레를 키우는.. 난 왜 그게 그렇게 감동이었는데... 그게 혼자 읽으면서 그게 나 같은 느낌이 들고.. 집에 와서 몰래 보는데 무척 심플한 내용인데 강아지똥이 너무 슬펐어요, 그 때 당시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 때 당시 내가 힘들었더라.. 내가 가치 없이 태어난 것 같아서.. (2013.11 여학생M 인터뷰)

선생님이랑 진행했던 큰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기억에 남지만, 저는 일상 속에서 저희가 상담실에 갔을 때 때때로 선생님이 그림책을 보여주시면서

“이 책 제목이 뭐 같아?.. 내용이 뭐 같아?..” 라고 질문해 주시던 게 기억에 남아요, 각자 상상에 빠져서 대답하고,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존중하고 상상력을 넓힐 수 있었고 책의 본 내용을 알고 나서도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의 틀린 게 아닌 그저 다르다는걸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때 우리는 학교에서 틀렸다고 칭했던 아이들이므로.. 사소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게, 나도 옳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2012.11 여학생 J 자서전)

학생들에게 책이 있는 교육복지실은 ‘شط’였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던 상관없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도 좋은 곳이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면 되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항상 인상 쓰고 다니던 학생들이 교육복지실에서는 웃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어른 중에 ‘믿을만한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이 생겼고, 연구자는 독서활동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크게 나누면 책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현장학습 하기, 자원봉사이다. 먼저 책 함께 보기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책과 만화책을 중심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였고, 방과 후나 방학 중을 이용하여 심리관련 책을 소개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심리관련 책은 내용이 어려워서 책의 삽화를 통해 쉽게 설명하였다. 두 번째 현장학습 가기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면 책을 읽고 미술관에 가거나 여행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예비중학교 책읽어주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활동은 모두 자신과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제까지 ‘짜증’으로 표현되었던 많은 감정들의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하였다. 그림책을 통해 은유적으로, 심리관련 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려주었다.

이 활동은 동일 학년 폭력서클 여학생 전원이 참가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내 파급효과가 있었다. 후배인 1학년 학생들도 교육복지실을 이용하였고, 선배인 3학년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비행청소년은 집단일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고, 꾸준히 활동에 참여한 5명이 폭력서클에서 탈퇴하였다.

### 3) 독서 활동 이후

- 잘 나가는 파란자전거 :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기

나는 책 필요성을 너무나도 느껴요, 책을 좀 더 읽어들께... 그나마 선생님이랑 책을 읽고나서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동화책이라도 좀 읽어들 것을 그랬어요, 책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뭐든지 책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레포트 쓸 때나 뿐만 아니라, 책은 참.. 와~ 책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개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가보지 못했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시야가 좁아서 .. 글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글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진짜 글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느끼는 것이 대학 와서 글 하나가..시 같은 것이... 책은 많이 알아야 하는 구나, 공부 뿐이 아니더라도...귀하다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어요, (2013.11 여학생M 인터뷰)

제가 책을 선생님이랑 봤던 것은 그림책이었잖아요, 그 때도 아무 말 없이 봤던 이유가 그림책이니까 봤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강요받거나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은 무조건 한 권이라도 읽어야겠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읽다보니 이제는 소셜, 자기개발서.. 가리지 않고 읽어요, 어떤 책이든 다 도움이 되더라구요, 지

**금 남자친구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귀게 되 있는걸요. (2013.11 여학생5 인터뷰)**

학생들은 졸업하면서 연구자와는 SMS와 편지, 만남이 201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졸업 후에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연구자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고, 연구자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책을 찾고 읽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미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겼다.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 연구자가 어디에서나 이야기했던 ‘훌륭한 우리 아이들’이 자기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 ‘훌륭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가 청소년기에 삶을 흔들어놓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채워가기도 한다. 독서는 수동적으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책에 담겨진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는 활동이다. 독서활동은 비행학생들로 하여금 책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였고, 책을 통하여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였으며, 책 속에 들어있는 정보와 타인과의 협동을 통해 삶을 통찰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표 2> 연구참여자별 연구결과 분석표

구분	여학생 J	여학생 H	여학생 L	여학생 M	여학생 S
독서활동경험이전	-비행행동(흡연, 교사지시불이행) -장애가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부끄러움 -어른들에 대한 분노	-비행행동(흡연, 무단 결석, 교사지시 불이행) -부모의 별거 이후 방치 -우울성향이 높음(자살 시도)	-비행행동(흡연) -아버지의 사별에 대한 원망과 가족 내 지지자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 -자신감 결여	-비행행동(음주) -탈북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에 두려움(집 단파돌림에 대한 상처, 정체성 혼란)	-비행행동(음주, 교사지시불이행) -약해보이는 것을 싫어함 -아버지의 보증 실패로 인하여 파산(사람에 대한 믿음)
공통점	폭력서를 가입, 수업이탈, 복장불량, 폭력(직접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현장에 있었음), 학습에 대한 무관심, 수업과제 불이행.				

독서활동경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 -독서를 통한 감정정화 -타인에 대한 다른 시각	-상처 받은 어린 시절의 기억 -독서를 통한 감정정화 -시간관리	-독서를 통한 감정정화 -독서를 통한 애도과정 경험 -충분한 휴식	-자신의 감정 찾기 -독서를 통한 감정정화 -행복했던 기억	-연구자와 닮아가기 -성공경험 -시간관리 -미래에 대한 희망
공통점: 폭력서를 탈퇴, 수업이탈하지 않음, 고교 진학에 대한 목표가 생김					
독서활동이후	-고교 전교 회장 역임 -대학진학 -아버지와 화해 -자기개발서를 통해 도움을 얻음	-고등학교 자퇴 -검정고시, 한자급수, 중국어능력시험 합격 -대학진학 -독서의 즐거움을 알	-고교진학 후 집단따돌림 경험 -전학 후 학교적응, 취업 -간호조무사시험 합격 -간호대학 준비 중 -고교시절부터 신문 읽기	-난민으로 영국으로 출국(거부되고 귀국할 후 복자대안 학교 입학) -조울증 겪음 -대학진학 -독서의 중요성 인식	-고교진학 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 -대학진학 후 커피전문점 경영 계획 -스스로 독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함.
공통점: 삶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있음, 삶의 정보를 독서에서 얻음. 독서의 중요성 인식, 중학교 시절 독서활동에 대한 즐거웠던 기억.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독서는 세상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독서는 그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자존감 획득과 자신감의 향상으로 이어져 가족애와 공동체 활동 수용해가는 삶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195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등을 섭렵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져 단편적인 결과만을 제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독서치료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종적연구로서 연구참가자들이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 독서치료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행청소년들은 독서활동을 통하여 과

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현재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어 미래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4.2 제언

1) 성공적인 독서치료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상호협조가 필요불가결 한데 이를 충족시켜주는 동인으로 라포르(rapport)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탈비행 을 위한 독서활동은 프로그램보다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인간관계가 우선 되어야 할 것 이다. 학교나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일 년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 대상자를 모으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비행청소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비행청소년들의 관심은 프로그램 자체 보다는 그 운영자에게 쏠린다. ‘무엇이’가 아니라 ‘누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그램보다는 ‘누가’를 고민한 후 그 사람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2)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이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방치했거나 상처

를 준 성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성인들에 대한 이러한 그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잃었던 성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 대책이나 노력에 우선되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한결같이 따뜻한 이해와 배려로 그들을 지지 해 줄 수 있는 성인들이 그들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것도 장기간 지속적이어야 되겠다. 단기 간의 상담이나 심리치료프로그램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행 청소년들은 독서활동 멘토와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 
- 1) ALBERT ELLIS, CATHARINE MACLAREN, 2006,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Impact
  - 2) 김수희, 2007, 장애아동어머니를 위한 통합적 독서치료프로그램 개발,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3) 서기자, 2006, 독일어권 청소년문학을 활용한 독서요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4) Glazier, Jack D & Ronald R. Powell. 1992,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5) 김정근, 1998,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한울아카데미
  - 6) Clandinin, D.J., & Connelly, F.M, 2000, 「Narrative Inquiry :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7)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논문
  - 8) Clandinin, D.J., Connelly, F.M,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교육과학사